

않아 용왕신(龍王神)이 노(怒)하여 바위를 전복시켰다 하여, 이후부터는 간혹 별신(別神)곳을 하였는데 현재는 연행하지 않는다.

제13절 읍남1리(邑南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2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로 동쪽은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읍남2리(抹樓洞)가 있고, 서쪽은 악구산(岳丘山)의 지맥인 금산맥(錦山脈)이 마을 좌우측으로 뻗어있으며, 남쪽은 근남면 수산리와 접하여 있고, 북쪽으로는 읍내3리(月邊洞)가 있다. 그리고 금산(錦山)에서 발원하는 냇물이 하토일(下吐日)과 오개곡(五個谷) 사이로 흘러 남대천(南大川)으로 유입되며, 읍내 3리와의 경계 지역으로 흐르는 물이 남대천과 합류하여 동해로 흐른다.

2. 마을의 역사

1453년에 관직에서 물러난 영일인(迎日人) 정도(鄭渡)가 마을을 개척(開拓)하였다 하며, 퇴직하여 여생을 편안하게 지낸다는 뜻에서 퇴일(退逸)이라 하였다. 그 후 예천인(醴泉人) 임금(林兢)이 입향하여 마을 형성에 가세(加勢)하였고, 일출(日出) 시의 서광(瑞光)이 해를 토하는 듯한 지세라 하여 마을 이름을 토일(吐日)이라 개칭하였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오개곡(五個谷)과 하토일(下吐日)이라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오개곡(五個谷)이란 오목하게 굽어진 다섯 개의 작은 골짜기가 합쳐진 곳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하토일(下吐日)이 계곡의 하구(下口)에 있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마을회관은 2008년에 신축됐으며,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

3. 가구 분포

총 105세대가 거주하며 영일 정씨(迎日鄭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사찰(寺刹)

오개곡(五個谷)에 조계종(曹溪宗)인 보광사(普光寺)가 있다.

2) 성황당(城隍堂)

오개곡(五個谷)의 좌측 산줄기에 사당이 있는데, 엄선된 제관(祭官)이 매년 정월 보름날 자시(子時)에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농(豐農)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3) 해당안(海棠岸)

마을 옆과 앞의 제방에 해당화(海棠花)가 만발하면 경관(景觀)이 아름다웠다고 하여 해당안(海棠岸)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제14절 읍남2리(邑南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남대천(南大川)을 경계로 하여 읍내2리와 읍내3리가 있으며, 남쪽으로 남대천(南大川) 건너에 수산리(守山里)의 비래봉(飛來峰)이 있고, 관동팔경(關東八景)인 망양정(望洋亭)이 바라보인다. 북쪽은 읍남3리가 있다.

2. 마을의 역사

마을이 언제 개척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600년경에 마을 앞 냇가에서 우연히 발견된 나무토막에 지로(旨老)라 기록된 것을 보고 마을 이름을 지로동(旨老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 후 1750년경에 울진현(蔚珍縣)의 객관(客館) 동편에 목재(木材) 누정(樓亭) 2칸이 있었는데, 마을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마을 이름을 말루(抹樓)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마을회관은 2017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